

미디어사용시간과 부모의 미디어중재가 유아의 공감능력에 미치는 영향*

강 보 람¹⁾

이 강 이²⁾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이 연구는 TV, 컴퓨터, 스마트기기 등을 통해 일상적으로 미디어에 노출되어 있는 유아의 생활환경이 유아의 공감 발달에 어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서울 소재의 어린이집에 재원중인 만 3, 5세 유아 123명, 유아의 어머니 123명, 아버지 123명으로 하였으며, 영상이야기 공감 과제를 실시하여 유아의 정서적 공감과 인지적 공감에 대한 응답을 얻었다. 부모 질문지를 사용하여 유아의 미디어사용시간, 부모의 미디어중재를 측정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4.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기술통계,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유아의 미디어사용시간은 정서적 공감과 인지적 공감에 부적 영향을, 부모의 간접중재는 유아의 인지적 공감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장시간의 미디어사용이 유아의 공감 발달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밝혔다. 나아가 가정에서 유아의 미디어사용 환경을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부모의 간접중재가 유아의 공감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한다.

주요어 : 정서적 공감, 인지적 공감, 영상이야기, 미디어사용시간, 미디어중재

* 본 논문은 2017년 석사학위청구논문의 일부임.

1)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석사

2) 교신저자 :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 및 생활과학연구소 겸무연구원 (E-mail: kangyil@snu.ac.kr)

I. 서 론

유아기는 사회정서발달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시기로, 특히 공감능력은 사회적으로 원만한 관계형성을 위해 필요한 요소이다 (Eisenberg & Miller, 1987). 공감이 협동성, 사회성, 이타적 행동 등과 강한 정적 상관을 갖고 친사회적 행동을 예측하는 기제가 된다는 결과(Williams, O'Driscoll, & Moore, 2014) 뿐만 아니라 공격적인 행동과는 부적 상관(Miller & Eisenberg, 1988; Strayer & Roberts, 2004)을 보인다는 연구들을 통해 공감 발달의 중요성에 대한 관심이 확산되었다. 공감능력은 사회적 유능성, 친사회적 행동과 같은 긍정적인 사회적응을 가능하게 해주므로(Eisenberg, 2000), 유아들이 또래와 조화로운 정서적 관계를 맺는데 이점이 된다. 그러나 유아기에 공감 발달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는 우울, 위축 등의 내적 증상이나 공격성, 과잉행동 등의 외적 증상으로 표출될 가능성이 있다(권기남, 2017; Eisenberg, Spinrad, & Morris, 2014). 정서 행동문제는 이후 학령기 때 학업성취 등 학교 생활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Dadds et al., 2008) 성인기의 대인관계와 사회생활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Crick, 1996).

최근 유아들의 미디어 사용이 급증하면서, 미디어는 유아의 삶에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유아의 생활시간조사(도남희, 김정숙, 하민경, 2013; 천희영, 2015)와 미디어사용 실태(이정림, 도남희, 오유정, 2013)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유아의 하루 일과 중 미디어사용시간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을 뿐만 아니라 휴대가 간편한 스마트기기 사용률이 증가하면

서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영상을 시청하게 되었고 유아들이 혼자서 영상물을 시청하는 경우도 많아졌다. 유아가 미디어를 통해 시청하는 영상물은 빠른 화면 전환과 그에 따르는 소리, 강렬한 색감, 동물 및 인형의 등장 등 유아들의 흥미를 끄는 요소를 갖추고 있다 (Goodrich, Pempek, & Calvert, 2009). 이렇듯 현대 유아들은 어릴 때부터 영상물에 쉽게 빠져들고 과몰입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반면, 대인 상호작용을 경험할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 공감 능력은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기 때문에 유아의 미디어사용으로 인한 사회적 활동 감소가 유아의 공감 발달에 부정적일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유아의 미디어사용시간 증가가 유아의 공감 발달에 어떠한 과정을 거쳐 영향력이 나타날 수 있을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미디어사용시간이 유아의 공감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크게 두 가지로 예상해볼 수 있다. 첫째, 대체 가설(displacement hypothesis)이다. 이는 미디어를 사용하는데 보내는 시간만큼 신체적, 사회적, 학습적 활동을 할 시간이 줄어든다는 가설이다(Neuman, 1995). 이 가설은 빈번한 영상 시청으로 인해 인지발달을 더 자극시킬 수 있는 가상놀이 등의 활동이 대체될 가능성을 주장한다 (Christakis, 2009; Zimmerman & Christakis, 2007). 이와 관련하여 유아의 TV 시청 시간이 길수록 그림 그리기, 연주하기, 가상놀이, 장난감 놀이 등의 창의적인 놀이를 하는 시간이 줄어들었다는 결과(Vandewater, Bickham, & Lee, 2006)가 보고되었다. 또한 스마트기기를 많이 사용하는 유아는 또래 간 상호작용이 적었다

는 연구(김종민, 문정주, 권미량, 2014)와 게임 몰입도가 낮은 유아일수록 타인과 어울리길 좋아하고 대인관계가 좋으며 활동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연구(구희정, 2013)들은 이와 같은 가설을 뒷받침한다. 대체 가설에 근거할 때, 미디어사용시간이 많은 유아들은 다른 사람들과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공감을 배울 수 있는 사회화의 기회가 적어져 공감능력을 충분히 발달시키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가정을 해볼 수 있다.

둘째, 손상된 언어 발달 가설(impaired- language development hypothesis)이다. 이는 미디어에 자주 노출되면 시각적 처리에만 주로 의존하게 되고, 아동의 인지 수준에 맞지 않은 언어 정보를 접하게 됨으로써 영상매체가 아동의 언어 발달을 저해할 수 있음을 주장하는 가설이다(Nigg, 2006; Zimmerman, Christakis, & Meltzoff, 2007). 언어 기술은 자기 행동에 대한 반성과 감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조절을 촉진시킨다고 추정된다(Beaver, DeLisi, Vaughn, Wright, & Boutwell, 2008; Gallagher, 1999). 과도한 미디어 사용으로 인해 초래된 언어 발달의 결핍은 자기조절 강화를 방해하여(Jensen et al., 1997), 친사회적 행동 경향성을 낮추며 공격성, 주의집중문제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영상물에 많이 노출될수록 유아의 언어 기술이 떨어져 긍정적인 또래상호작용은 감소하는 반면 부정적인 또래상호작용이 증가한다는 연구결과(조윤주, 2016)는 이러한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언어발달이 증폭적으로 이루어지는 유아기 때 미디어사용시간이 많을 경우 언어발달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또래와의 상호작용에 있어서 또래가 표현하는 바를 온

전히 수용하고 반영하는데 서툴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미디어사용시간과 사회정서발달의 관계를 살펴본 선행연구들은 둘 간의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선행연구(Conners-Burrow, McKelvey, & Fussell, 2011)에 따르면 유아의 TV 시청 시간이 증가할수록 교실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상호작용 중 나누기, 협동하기, 칭찬하기 등의 친사회적 행동과 관련된 사회적 기술이 낮아졌다. 또한 TV/영화 시청, 게임사용 빈도가 높아질수록 청소년의 공감능력이 낮아져 타인을 돕고 협동하고자 하는 친사회적 행동 경향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Prot et al., 2014). 이와 비슷하게 유아와 아동의 과도한 미디어 사용은 정서행동문제인 외현화 및 내재화 행동문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여러 연구에서 논의된 바 있다. 1~3세 때 TV 노출 정도가 높았을 경우 7세 때 주의집중문제를 겪을 가능성이 높아졌다(Christakis, Zimmerman, DiGiuseppe, & McCarty, 2004). 국내연구에서도 유아의 스마트기기 사용 정도가 높을수록 유아의 공격성 수준이 높았을 뿐만 아니라(김수정, 정익중, 2016) 스마트기기를 과다하게 사용하는 6~12세 아동은 그렇지 않은 아동에 비해 위축, 우울/불안, 신체화 증상이 높게 나타났다(백혜원, 신윤미, 신경민, 2014).

이처럼 미디어를 많이 사용할수록 사회적 기술이 서툴고, 정서행동문제를 보일 수 있다는 선행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미디어사용시간이 상대방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정서를 공유하는 유아의 공감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예상해볼 수 있다. 유아의 미디어

사용시간이 증가하고 있는 현 상황으로 인해 유아의 공감 발달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이 예상되지만 이를 직접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소수에 불과하다. 관련 선행연구들에서 유아의 TV 시청시간이나 스마트기기 사용 빈도가 높을수록 공감, 친사회적 행동과 관련된 사회적 기술이 낮았다는 결과(성지현, 변혜원, 남지해, 2015; Connors-Burrow et al., 2011)들이 보고되면서 미디어사용시간과 유아의 공감 간의 관계가 일부 밝혀졌다. 하지만 유아기가 되면서 TV, 컴퓨터, 스마트기기 등 다양한 미디어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 미디어사용시간과 유아의 공감 발달 간의 인과적 관계를 밝힌 연구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므로 이를 구체적으로 확인해보는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유아기의 미디어사용시간이 실제로 유아의 공감 발달에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살펴보고, 그에 따른 적절한 미디어 사용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유아의 미디어 사용은 유아의 가족환경, 특히 부모의 양육행동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박소영, 문혁준, 2015; 이유진, 2016; Lauricella, Wartella, & Rideout, 2015). 유아는 영상물을 직접 선택하기보다는 성인에 의해 접하게 되므로(이경숙, 정석진, 박진아, 전연진, 2014) 주 양육자가 자녀의 미디어 사용에 대하여 어떠한 가치와 태도를 갖고 지도하는가가 중요하다. 이처럼 자녀의 미디어 사용에 관한 부모의 양육행동을 미디어중재(Valkenburg, Krcmar, Peeters, & Marseille, 1999)라고 부른다. 미디어중재의 전반적인 목표는 자녀의 미디어 노출 정도를 감소시키는 동시에 미디어 내용에 대

해 자녀가 비판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Warren, 2003). 유아가 미디어를 사용하고 있을 때, 부모는 유아에게 발달적으로 적절한 중재 유형을 선택하여 유아의 미디어사용을 중재해야 한다. 그러므로 유아에게 어떤 중재 유형이 유아의 공감 발달에 이로운 유형인지 알아보는 것은 중요한 과제이다.

선행연구에서 미디어사용과 관련된 부모의 중재행동은 크게 두 유형으로 살펴보았으며(Nathanson, 1999; Valkenburg et al., 1999), 이는 부모가 자녀와 함께 영상을 시청하며 그 내용에 관해 대화하는 직접중재, 자녀와 영상 시청의 규칙을 정하는 것과 같은 간접중재로 구분된다. 직접중재는 가정 내에서 미디어를 둘러싸고 발생하는 부모와 자녀의 언어적 상호작용으로 자녀가 미디어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부모가 설명해주고, 자녀와 대화를 나누는 중재를 뜻한다(Buijzen, Rozendaal, Moorman, & Tanis, 2008). 간접중재는 부모가 자녀의 미디어 사용에 있어서 한계를 정하는 중재를 말한다(Valkenburg et al., 1999). 구체적으로, 미디어사용시간이나 장소를 제한하거나, 어떤 유형의 내용이 담긴 영상물을 이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세부적인 규칙을 세우고 감독하는 등의 미디어 사용 환경을 조성하는 중재 행동이라고 볼 수 있다.

부모가 유아와 함께 영상을 시청하며, 영상 속 인물의 행동에 대해 설명하고, 평가하는 직접중재는 미디어에 대한 자녀의 인지적 과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Clark, 2011). 부모는 자녀에게 미디어에서 보는 것과 관련한 추가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자녀가 모호한 영상물의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

이를 통해 매체에 관한 자녀의 비평적인 태도가 촉진될 수 있다. 부모의 직접중재는 유아의 이해도를 높이는 것과 같은 인지 및 언어 발달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들(Krcmar, Grela, & Lin, 2007; Strouse et al., 2013)이 보고된 바 있다. 한편 부모의 직접중재는 폭력적인 내용의 부정적인 효과를 감소시켜 자녀의 공격성이 낮아지게 하고(Collier et al., 2016), 친사회적인 내용 시청 시 직접중재가 있을 경우 자녀의 공감 수준이 향상된다(Rasmussen et al., 2016)고도 보고되며, 부모의 직접중재가 사회정서발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관련 선행연구들은 미디어 주제에 따른 직접중재를 주로 살펴보았기 때문에, 다양한 주제의 영상물을 포괄하여 보일 수 있는 부모의 직접중재가 유아의 공감에는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가 요구된다.

부모가 자녀의 미디어사용시간이나 내용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간접중재를 할 경우, 자녀의 미디어사용시간이 줄어들고 부적절한 내용의 미디어 사용이 감소하였다(Collier et al., 2016). 자녀의 자율성을 존중하며 미디어사용에 관한 규칙을 정하는 가정에서는 자녀의 친사회적 행동 수준이 증가하였고(Valkenburg et al., 2013), 폭력적인 영상물 노출 정도와 자녀의 공격성 간의 관계를 부모의 간접중재가 완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likkers, Piotrowski, & Valkenburg, 2017). 국내연구에서도 부모의 간접중재는 유아기 자녀의 부적절한 미디어사용을 차단함으로써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조안나, 고영자, 2013), 부모가 자녀에

게 폭력적인 장면을 보지 못하게 한 집단이 보게 한 집단보다 자녀의 공감능력이 유의하게 높았다(장미선, 문혁준, 2004). 이와 같이 간접중재는 자녀의 미디어사용시간 감소와 부적절한 내용 차단과 큰 관련성이 있으므로, 간접중재를 통해 매체의 부정적인 영향력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따라서 부모의 간접중재를 통해 미디어가 초래할 수 있는 영향을 실제로 완화시켜 유아기 자녀의 공감능력에 해로운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하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공감 발달이 중요한 유아기 때 미디어사용이 일상화되고 있는 현 상황을 반영하여 미디어사용시간과 이러한 유아의 미디어사용 환경을 구성하는 부모의 미디어중재가 유아의 공감능력과 어떤 관계를 갖는지 살펴봄으로써 바람직한 미디어사용 습관을 형성하는 것의 중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유아의 공감능력을 살펴본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에서는 직접적인 응답을 얻기 위해 유아에게 짧은 가설적 이야기를 들려주는 과제를 사용해 왔는데(송승희, 장경은, 2015; 이상미, 한세영, 2011), 이러한 방식은 유아가 공감하는데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지 못하며 자연스러운 정서적 반응을 불러일으키기 어렵다. 공감 측정 방식의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으로 등장인물의 정서가 표현되는 이야기 형식의 영상물을 보여줄 경우 유아의 공감 반응을 자연스럽게 측정할 수 있다. 영상이야기를 활용한 연구들(de Wied, van Boxtel, Marthys, & Meeus, 2012; Strayer & Roberts, 2004)에서는 주로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지만, 유아들

의 경우에도 자기 또래의 등장인물을 보게 되면 인물에게 쉽게 동일시하게 되어 자발적인 공감 반응을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Cohen, 2001), 영상이야기를 통해 유아의 공감능력을 측정하는 연구가 요구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유아의 공감능력을 영상이야기 과제로 측정하고자 한다. 더불어 부모의 미디어중재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 학령기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최근 유아용 영상물의 보급이 늘어나면서 유아들도 이전에 비해 미디어에 많이 노출되고 있으므로,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미디어중재 행동이 어떠한지 구체적으로 탐색해 볼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부모가 유아기 자녀의 미디어사용을 중재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식을 찾는 것이 미디어에 대한 유아의 과몰입을 막고 긍정적인 사회정서발달을 도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부모의 미디어중재가 유아의 공감 발달에 미치는 영향력을 예상해볼 수 있었지만, 부모 중재 유형별로 어느 유형이 유아의 사회정서발달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 연구는 없었다. 따라서 부모의 미디어중재 유형별로 유아의 공감에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 구체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

이상의 연구 필요성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만 3, 5세 유아의 공감능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주요 환경 요인으로 유아의 미디어사용시간과 부모의 미디어중재를 설정하고, 미디어사용시간과 미디어중재가 유아의 공감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유아의 미디어사용이 공감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하는 바람직한 부모 역할의 방향에 관한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문제 1> 유아의 공감능력(정서적 공감, 인지적 공감), 미디어사용시간, 부모의 미디어중재(직접중재, 간접중재)의 양상은 어떠한가, 이는 유아의 연령과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미디어사용시간과 부모의 미디어중재는 유아의 공감능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3> 미디어사용시간과 부모의 미디어중재는 유아의 공감능력에 영향을 미치는가?

II. 연구방법

1. 참여자

이 연구는 서울 소재의 어린이집 10곳의 만 3, 5세 유아 123명과 그들의 어머니와 아버지 각 123명씩, 총 369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령별 연구대상은 만 3세 유아 52명(남아 26명, 여아 26명), 만 5세는 71명(남아 36명, 여아 35명)이다. 만 3세의 평균 월령은 44.9개월(39~50개월), 만 5세의 평균 월령은 68.1개월(63~74개월)이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교육수준은 4년제 이상 대학교 졸업이 각각 60명(48.8%), 59명(48.0%)으로 가장 많았다. 아버지의 직업은 사무관리직이 52명(42.3%), 전문기술직 37명(30.1%), 자영업 10명(8.1%)순이었다. 어머니의 근로여부에 대해서는 취업모가 78명(63.5%)으로 비취업모 43명(35.0%)보다 과반이상 더 많았다. 가정의 월 평균 소득수준은 400만원 이상이 87명(70.7%)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2. 연구도구

공감능력

이 연구에서는 유아의 정서적 공감과 인지적 공감을 측정하기 위해 또래관계에서 경험할 수 있는 기쁨, 슬픔, 화남, 무서움의 정서가 포함된 영상이야기를 제작하여 영상이야기 공감 과제로 사용하였다. 영상이야기는 Howe, Pit-ten Cate, Brown과 Hadwin(2008)이 개발한 공감 과제를 기초로, 연구자가 수정 및 보완하여 약 120초 길이의 영상이야기 4개를 구성하였다. 또한 선행연구(Pons et al., 2004)에서 제시한 유아의 정서이해 발달을 고려하여, 영상이야기 속에 주인공이 처한 상황, 주인공의 말, 소망과 같이 세 가지 공감 단서를 포함시켰다. 예를 들어, 한 영상이야기는 주인공이 친구랑 같이 놀이터에서 술래잡기 놀이를 하다가 주인공이 돌에 걸려 넘어진 경우, 친구가 주인공이 탄 그네를 밀어주고 있을 때 주인공이 “그만해. 너무 높아.”라고 말하는 경우, 주인공이 연을 날리고 싶어 할 때 같이 놀던 친구가 주인공에게 연을 주는 경우의 세 가지

주요 장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영상이야기의 내용과 상황 구성은 아동학 교수 1인과 아동학 박사 2인이 그 적합성을 확인하였다.

공감 질문과 유아 반응의 결과는 선행연구(Bensalah, Caillies, & Anduze, 2016; Howe et al., 2008)에 근거하여 점수화하였다. 영상이야기 공감 과제에서 실시한 공감 질문은 표 1과 같다. 유아는 하나의 영상이야기 공감 과제에 대해 각각 3개의 정서적 공감 관련 질문과 인지적 공감 관련 질문을 받는다. 연구자는 세 가지 장면으로 구성된 영상이야기를 유아와 함께 시청하며 한 장면이 끝날 때마다 정서적 공감에 대한 질문(예: 주인공이 놀이터에서 넘어졌을 때, ○○ 기분이 어땠어요?)과 인지적 공감에 대한 질문(예: 왜 그런 기분이 들었어요?)을 하였다. 유아의 정서적 공감의 평정은 등장인물의 정서와 자신의 정서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0점, 등장인물의 정서를 부정적인 정서(슬픔, 화남, 무서움) 중 하나로 판단하면서 자신의 정서는 등장인물과 일치하지 않는 부정적인 정서로 판단하는 경우에 1점, 등장인물의 정서와 자신의 정서가 일치하는 경

표 1. 영상이야기의 사례와 공감 질문

장 면	내용	공감 질문	
		정서적 공감	인지적 공감
①	동현이는 친구랑 같이 놀이터에 왔어요. 놀이터에서 술래잡기하며 놀고 있어요. 그때 동현이가 돌에 걸려 넘어졌어요.	동현이가 놀이터에서 넘어졌을 때, ○○ 기분이 어땠어요?	왜 그런 기분이 들었어요?
②	동현이 친구가 동현이 그네를 밀어주고 있어요. 동현이가 “그만해! 너무 높아!”라고 말해요.	동현이가 말할 때, ○○ 기분이 어땠어요?	왜 그런 기분이 들었어요?
③	이제 동현이는 연을 날리고 싶어요. 동현이 친구가 동현이에게 연을 줬어요.	동현이가 연을 받았을 때, ○○ 기분이 어땠어요?	왜 그런 기분이 들었어요?

우에 2점을 부여하였다. 유아의 인지적 공감의 평정은 관련 없는 응답이거나 무응답일 경우에 0점, 등장인물과 같은 정서 상황에서 자신의 경험을 언급하거나 등장인물의 정서적 경험으로 인해 느낀 감정을 언급하면 1점을 부여하였다.

영상이야기 하나 당 세 가지의 정서적 공감 질문에 대한 점수범위는 0~6점이며, 전체 4개의 영상이야기의 점수범위는 총 0~24점이다. 정서적 공감 점수가 높을수록 유아가 영상이야기 속 등장인물의 감정을 그대로 느끼고 공유하는 정서적 공감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영상이야기 하나 당 세 가지의 인지적 공감 질문에 대한 점수범위는 0~3점씩이며, 전체 4개의 영상이야기의 점수범위는 총 0~12점이다. 인지적 공감 점수가 높을수록 유아가 영상이야기 속 등장인물의 감정을 이해하여 감정의 원인을 해석하는 인지적 공감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미디어사용시간

미디어사용시간은 유아가 하루 동안 영상매체를 사용한 시간을 말한다. 영상매체란 화면을 통해 시청각 자료를 전달하는 기능이 갖춰진 전자기기를 통틀어 칭하는 용어로, 영상매체의 종류는 유아들이 가장 빈번하게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난(이정림 등, 2013) TV(IPTV, DVD 포함), 컴퓨터(데스크탑, 노트북 포함), 스마트기기(스마트폰, 스마트패드 포함)로 한정되었다.

미디어사용시간 자료는 부모용 질문지를 통해 수집하였다. 이때 TV, 컴퓨터, 스마트기기를 통한 유아의 하루 평균 총 미디어사용시간을 각각 평일과 주말로 나누어 개방형으로 답

하는 방식으로 제시하였다. 주중 일일 평균 사용시간과 주말 일일 평균 사용시간으로 나누어 응답한 시간을 미디어사용시간이라는 하나의 변수로 만들기 위해, 국내외 선행연구(구현영 & 김은정, 2015; Bickham, Hsuen, & Rich, 2015; Connors-Burrow et al., 2011)에서 주중 사용시간과 주말 사용시간의 가중치를 다르게 부여한 계산법을 참고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 유아의 미디어사용시간은 주중 일일 평균 미디어사용시간의 다섯 배와 주말 일일 평균 미디어사용시간의 두 배를 합하여 일주일의 미디어사용시간을 계산한 후, 이를 다시 하루 단위로 환산하여 하루 평균 미디어사용시간을 분 단위로 계산하였다.

미디어중재

유아의 미디어사용에 관한 어머니와 아버지의 중재 행동에 관한 문항은 질문지를 사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총 20문항으로 구성된 부모의 미디어중재 질문 문항들은 선행연구(Nathanson, 1999; Nikken & Jansz, 2014; Valkenburg et al., 1999; Warren, 2003)의 도구를 연구자가 번안 및 수정하고, 새로운 문항을 일부 추가하여 제작하였다. 이때 선행연구에서 교육적 중재로 명명한 개념을 직접중재로, 제한적 중재로 명명한 개념을 간접중재로 수정하여 미디어중재 유형을 분류하였다. 이는 연구대상이 유아라는 점에서 부모와 유아기 자녀가 함께 미디어를 통해 영상물을 시청하는 상황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유아기 자녀의 영상시청에 있어 부모의 미디어중재가 직접적인지 또는 간접적인지로 유형을 나누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

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사용한 부모의 미디어중재 도구는 유아의 미디어사용에 관한 어머니와 아버지의 중재 수준을 묻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접중재와 간접중재의 두 유형으로 구분된다. 직접중재는 영상에 관한 전반적인 설명, 등장인물의 행동이나 감정 발생의 이유 설명, 등장인물의 행동이나 감정에 대한 평가에 관한 내용을 묻는 질문 10문항(예: 영상에 나오는 등장인물이 착한 말이나 착한 행동을 왜 하는지 자녀에게 설명한다)으로 구성되어 있다. 간접중재는 사용 시간/장소/내용 제한, 감독에 관한 내용을 묻는 질문 10문항(예: 자녀의 하루 영상 시청량을 정한다)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Likert형 5점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전혀 안 그렇다’ 1점부터 ‘항상 그렇다’ 5점까지로 점수화하였다. 부모의 미디어중재 점수는 중재 유형별로 어머니와 아버지의 중재 점수를 합산한 뒤 2로 나누어 산출하였다. 각 중재 유형별 총점을 문항수로 나누어 직접중재와 간접중재의 점수는 1점부터 5점까지의 분포를 가진다. 점수가 높을수록 유아의 미디어사용에 관한 부모의 중재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 부모의 미디어중재 전체 문항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91이었으며, 직접중재 10문항의 신뢰도 계수는 .95, 간접중재 10문항의 신뢰도 계수는 .83으로 나타났다.

언어이해

이야기 과제 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아의 언어 능력을 통제하고자 언어이해 검

사를 실시하였다. 검사도구는 한국 웨슬러 유아지능검사 4판(Wechsler, 2016; Korean-Wechsler Preschool and Primary Scale of Intelligence-IV)의 언어이해 지표에 속한 소검사를 사용하였다. 연구자는 유아의 나이에 맞는 소검사를 실시하여, 3세 유아에게는 수용어휘와 상식 소검사를, 5세 유아에게는 상식과 공통성 소검사를 실시하였다. 언어이해 검사의 점수 범위는 2~38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언어이해 능력이 뛰어난 것을 의미한다.

3. 연구절차

이 연구는 연구자가 소속된 대학의 생명윤리심의위원회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였다(IRB No. 1704/001-011). 어린이집 10곳의 기관장 협조 하에 유아 450명의 가정으로 연구 설명서 및 동의서를 배부하였고, 이 중 연구 참여에 동의 의사를 밝힌 135쌍의 부모와 그들의 자녀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영상이야기 공감 과제는 유아가 직접 시청한 후 응답해야 하기 때문에 연구자가 기관을 방문하여 실내의 조용한 공간에서 유아와 일대일 면접을 통해 과제를 실시하였다. 이때 이야기 과제 수행이 언어 능력과 유의한 상관이 있다는 선행 연구 결과(Vaish, Carpenter, & Tomasello, 2009)에 따라 유아의 언어 능력을 통제하고자 언어이해 검사를 함께 실시하였다. 연구자는 유아의 피로효과를 통제하기 위해 유아 한 명당 약 15분씩 총 3회에 걸쳐 과제를 시행하였다. 1회기에는 언어이해 검사를 실시하고, 2회기와 3회기에는 각각 2개씩의 영상이야기에 대한 공감 과제를 실시하였다.

처음 만나는 연구자에 대한 낯선 감정이 유아의 영상이야기 공감 과제 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1회기에는 언어이해 검사를 실시하였다. 검사는 연구자와 유아 간 일대일 면접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검사도구인 그림 카드와 기록지 등을 사용하여 시행하였다. 3세의 경우 수용어휘와 상식의 2가지 소검사를, 5세의 경우 상식과 공통성의 2가지 소검사를 시행하였으며, 총 10~15분 정도가 소요되었다. 다음으로 영상이야기 공감 과제는 2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유아는 각 회기마다 새로운 이야기를 두 편씩, 총 네 편의 영상이야기를 보았다. 영상이야기 공감 과제의 적용순서는 순서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각 유아마다 무작위로 배정하였다. 영상이야기 공감 과제는 연구자와 유아 간 일대일 면접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유아가 조사장소에 도착하면 유아에게 영상이야기를 들려주기 전 과제 응답에 사용되는 정서 카드를 보여주고 기본 정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한 뒤 과제를 시행하였다. 영상이야기 하나의 길이는 약 120초이며, 시간이 지나면 유아의 기억력이나 다른 환경적 요인이 영상이야기 공감 점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영상이야기 재생 중 공감의 단서가 포함된 장면이 나올 경우 영상이야기를 멈춘 후, 연구자가 묻는 공감 질문에 유아가 응답하도록 하였다. 방금 본 영상이야기 장면에서 등장인물의 기분이 어떨지 물어보며 이야기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는지 확인한 다음, 등장인물의 감정에 대한 유아의 기분이 어떤지 질문하여 정서적 공감 정도를 알아보았다. 그런 뒤 유아가 왜 그런 기분을 느꼈는지 물어보는 것으

로 인지적 공감 여부를 알아보았다. 1개의 영상이야기에 대한 면접조사 시간은 5~8분이 소요되었으며, 유아 1인당 영상이야기 네 편에 대한 면접조사에 소요된 시간은 약 20~30분이었다. 정서적 공감에 대한 유아의 응답은 기록지에 바로 기록하고, 인지적 공감에 대한 응답은 녹음을 한 후 전사하여 기록하였다.

연구대상 유아의 부모에게는 부모의 미디어중재, 유아의 미디어사용시간, 유아의 사회인구학적 배경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질문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질문지는 조사 당일 날 가정으로 전달하여 질문지 작성을 요청하였다. 회수된 질문지 270부 중 답변이 누락되거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질문지 12부와 영상이야기 공감 과제를 끝까지 마치지 못한 유아의 부모 질문지 12부를 제외한 246부의 질문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24.0(IBM Co., Armonk, NY)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유아의 연령과 성별에 따른 공감능력, 미디어사용시간, 부모의 미디어중재의 전반적 경향과 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평균, 표준편차,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유아의 공감능력, 미디어사용시간, 부모의 미디어중재 사이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을 사용하였다. 마지막으로 미디어사용시간과 부모의 미디어중재가 유아의 정서적 공감과 인지적 공감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결과 및 해석

1. 유아의 연령과 성별에 따른 공감능력, 미디어사용시간, 부모의 미디어중재 차이

만 3, 5세 유아의 연령과 성별에 따른 공감능력, 미디어사용시간, 부모의 미디어중재의 전반적 양상은 표 2와 같다. 먼저 유아의 공감능력을 살펴보면, 유아의 정서적 공감의 평균점수는 24점 만점에서 평균 15.50점($SD = 4.90$)으로, 12점의 중간 점수보다 높게 나타났다. 유아의 인지적 공감의 평균점수는 12점 만점에서 7.46점($SD = 3.12$)으로, 6점의 중간

점수보다 높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유아의 정서적 공감 및 인지적 공감이 연령과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 3과 같이 유아의 정서적 공감은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 = 12.02$, $df = 1$, $p < .01$). 만 5세 유아($M = 16.73$, $SD = 3.82$)의 정서적 공감 점수가 만 3세 유아($M = 13.81$, $SD = 5.69$)보다 높았다. 또한 유아의 인지적 공감은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 = 28.57$, $df = 1$, $p < .001$). 만 5세 유아($M = 8.62$, $SD = 2.26$)의 인지적 공감 점수가 만 3세 유아(M

표 2. 유아의 연령과 성별에 따른 공감능력, 미디어사용시간, 부모의 미디어중재 점수 ($N = 123$)

		연령	남아	여아	전체
			<i>M(SD)</i>	<i>M(SD)</i>	<i>M(SD)</i>
유아의 공감능력	정서적 공감	3세	12.35 (5.43)	15.27 (5.67)	13.81 (5.69)
		5세	16.39 (4.34)	17.09 (3.21)	16.73 (3.82)
		전체	14.69 (5.19)	16.31 (4.48)	15.50 (4.90)
	인지적 공감	3세	5.39 (3.18)	6.35 (3.68)	5.87 (3.44)
		5세	8.58 (2.44)	8.66 (2.10)	8.62 (2.26)
		전체	7.24 (3.18)	7.67 (3.08)	7.46 (3.12)
유아의 미디어사용시간	3세	176.48 (117.95)	138.38 (63.94)	157.43 (95.89)	
	5세	138.10 (94.15)	135.59 (88.48)	136.86 (90.75)	
	전체	154.19 (105.60)	136.78 (78.37)	145.56 (93.13)	
부모의 미디어 중재	직접 중재	3세	2.42 (.73)	2.43 (.65)	2.43 (.68)
		5세	2.55 (.65)	2.47 (.59)	2.51 (.61)
		전체	2.49 (.68)	2.45 (.61)	2.47 (.64)
	간접 중재	3세	3.54 (.50)	3.33 (.59)	3.43 (.55)
		5세	3.53 (.55)	3.56 (.59)	3.54 (.57)
		전체	3.54 (.52)	3.46 (.60)	3.50 (.56)

표 3. 연령과 성별에 따른 유아의 공감능력 점수 비교

(N = 123)

구분	분산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정서적 공감	연령	257.60	1	257.60	12.02**
	성별	98.32	1	98.32	4.59*
	연령×성별	37.19	1	37.19	1.74
	오차	2550.30	119	21.43	
인지적 공감	연령	227.78	1	227.78	28.57***
	성별	8.04	1	8.04	1.01
	연령×성별	5.91	1	5.91	.74
	오차	948.67	119	7.97	

* $p < .05$. ** $p < .01$. *** $p < .001$.

= 5.87, $SD = 3.44$)보다 높았다. 이는 만 5세 유아가 만 3세 유아보다 영상이야기 과제에서 등장인물이 보이는 감정에 대한 정서적 공감과 인지적 공감 정도가 더 높음을 의미한다.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유아의 정서적 공감의 경우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 = 4.59$, $df = 1$, $p < .05$). 여아($M = 16.31$, $SD = 4.48$)의 정서적 공감 점수가 남아($M = 14.69$, $SD = 5.19$)보다 높았다. 즉, 여아가 남아보다 영상이야기 과제에서 등장인물이 보이는 감정을 그대로 느끼고 공유하는 정서적 공감 정도가 더 높음을 의미한다. 유아의 인지적 공감에서 성별차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미디어사용시간의 양상을 살펴본 결과, 유아의 미디어사용시간은 하루 평균 145.56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의 연령 및 성별에 따른 미디어사용시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부모의 미디어중재의 양상을 살펴본 결과, 직접중재의 평균점수는 2.47점(SD

= .64)으로, 1점부터 5점까지의 직접중재 척도 중 ‘가끔 그렇다’에 해당하는 2점과 ‘종종 그렇다’에 해당하는 3점의 중간정도이다. 간접중재의 평균점수는 3.50점($SD = .56$)으로, 1점부터 5점까지의 간접중재 척도 중 ‘종종 그렇다’에 해당하는 3점과 ‘대부분 그렇다’에 해당하는 4점의 중간정도이다. 유아의 연령 및 성별에 따른 부모의 미디어중재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2. 유아의 공감능력, 미디어사용시간, 부모의 미디어중재 간의 관계

미디어사용시간, 부모의 미디어중재(직접중재, 간접중재), 언어이해능력과 유아의 공감능력(정서적 공감, 인지적 공감) 간에 유의한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분석결과 미디어사용시간, 부모의 미디어중재와 유아의 공감능력은 부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

표 4. 유아의 공감능력, 미디어사용시간, 부모의 미디어중재 간의 관계 ($N = 123$)

	1	2	3	4	5	6
1	1					
2	-.09	1				
3	-.32***	.38***	1			
4	-.28**	-.11	.06	1		
5	-.28**	-.05	.22*	.76***	1	
6	-.07	.09	.16	.01	-.02	1

주. 1. 미디어사용시간, 2. 미디어중재_직접중재, 3. 미디어중재_간접중재, 4. 정서적 공감, 5. 인지적 공감, 6. 언어이해

* $p < .05$. ** $p < .01$. *** $p < .001$.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미디어사용시간은 유아의 정서적 공감($r = -.28$, $p < .01$) 및 인지적 공감($r = -.28$, $p < .01$)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부모의 미디어중재 중 간접중재는 유아의 인지적 공감($r = .22$, $p < .05$)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유아의 인지적 공감은 부모의 미디어중재 유형인 직접중재와는 유의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미디어사용시간과 부모의 미디어중재의 관계에서는 미디어사용시간과 부모의 간접중재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 = -.32$, $p < .001$). 한편, 유아의 언어이해능력은 독립변수들과 유의한 관련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3. 미디어사용시간, 미디어중재가 유아의 공감능력에 미치는 영향

미디어사용시간과 부모의 미디어중재가 유아의 공감능력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알아

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때 영상이야기 공감 과제에서 연령 및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난 점을 고려하여 유아의 연령 변수와 성별변수를 통제하였다. 분석에 앞서 독립변수들의 공차한계는 .77~.98, VIF 값은 1.02~1.31로 나타나 각 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분석 결과, 연령 및 성별을 통제했을 때 미디어사용시간이 유아의 정서적 공감에 19%의 설명력을 가진다($F = 4.67$, $df = 6$, $p < .001$). 독립변수들의 표준화계수를 살펴보면, 미디어사용시간($\beta = -.24$, $p < .01$)만이 유아의 정서적 공감에 영향을 미쳤다. 즉, 하루 동안 미디어를 사용하는 시간이 적을수록 유아의 영상이야기 과제에서 등장인물이 보이는 감정을 그대로 경험하고 공유하는 정서적 공감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연령 및 성별을 통제했을 때 미디어사용시간, 부모의 간접중재가 유아의 인지적 공감에 28%의 설명력을 가진다($F = 7.67$, $df = 6$, $p < .001$). 독립변수들의 표준화계수를 살펴보면, 미디어사용

표 5. 미디어사용시간, 미디어중재가 유아의 공감능력에 미치는 영향

(N = 123)

	정서적 공감		인지적 공감	
	B	β	B	β
(상수)	17.16(3.16)		5.09(1.90)	
통제변수				
연령	2.75(.83)	.28**	2.59(.50)	.41***
성별	1.38(.82)	.14	.38(.49)	.06
미디어사용시간	-.01(.01)	-.24**	-.01(.00)	-.18*
부모의 미디어중재				
직접중재	-.58(.34)	-.15	-.40(.25)	-.16
간접중재	.12(.41)	.03	.51(.25)	.18*
R^2 (adj. R^2)	.19(.16)		.28(.25)	
F	5.58***		9.25***	

주. 더미변수: 연령(3세 = 0, 5세 = 1), 성별(남 = 0, 여 = 1)

* $p < .05$. ** $p < .01$. *** $p < .001$.

시간($\beta = -.18, p < .05$), 부모의 간접중재($\beta = .18, p < .05$) 순서로 유아의 인지적 공감에 상대적으로 영향을 많이 미쳤다. 즉, 하루 동안 미디어를 사용하는 시간이 적을수록, 그리고 부모의 간접중재 정도가 높을수록 유아의 영상이야기 과제에서 등장인물이 보이는 감정의 원인을 해석하는 인지적 공감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이상의 내용을 볼 때, TV, 컴퓨터, 스마트기기의 총 미디어사용시간은 영상이야기 과제에서 등장인물이 보이는 감정에 대한 유아의 정서적 공감과 인지적 공감에 부적영향을 미쳤다. 더불어 부모의 미디어중재 중 간접중재는 유아의 영상이야기 과제에서 등장인물이 보이는 감정을 이해하여 감정의 원인을 해석하는 인지적 공감에 영향을 미침을 보여준다.

V. 논의 및 결론

이 연구는 TV, 컴퓨터, 스마트기기 등을 통해 일상적으로 영상에 노출되어 있는 유아의 생활환경이 유아의 공감 발달에 어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만 3, 5세 유아를 대상으로 영상이야기 속 등장인물에 대한 유아의 정서적 공감과 인지적 공감의 전반적인 양상을 알아보고, 미디어 사용시간과 부모의 미디어중재가 유아의 공감 능력과 어떤 관련성을 보이며, 유아의 공감능력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 목적에 따라 수행된 연구 결과를 근거로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연령과 성별에 따라 유아의 정서적

공감과 인지적 공감 정도가 달라진다. 구체적으로, 만 5세 유아가 만 3세 유아보다 정서적 공감과 인지적 공감 정도가 높아 영상이야기 속 등장인물의 정서를 그대로 경험하고 공유하는 정도와 그 감정을 이해하여 해석하는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령에 따라서 유아의 공감 능력이 증가한다는 선행연구(권기남, 2017; Bensalah et al., 2016)와 맥락을 같이한다. 한편, 유아의 정서적 공감은 여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인지적 공감에서는 성차가 나타나지 않았다. 여아가 남아보다 정서적 공감과 인지적 공감 정도가 높다는 선행연구들(송승희, 장경은, 2015; 이상미, 한세영, 2011)과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결과이다.

둘째, 유아가 하루 동안 미디어를 사용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유아의 정서적 공감과 인지적 공감 정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디어를 사용하는 시간의 양적인 증가가 유아의 공감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제시해준다. 이는 유아의 미디어 노출 정도가 높을수록 공감을 포함한 사회적 기술 습득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연구결과(성지현 등, 2015; Connors-Burrow et al., 2011; Ostrov, Gentile, & Crick, 2006)와 그 맥을 같이 한다. 유아의 TV 시청 시간이 길수록 부모나 형제 자매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줄어들며 가족 간 대화를 나눌 가능성이 감소하였다(Tanimura, Okuma, & Kyoshima, 2007; Vandewater et al., 2006)는 결과를 고려해 볼 때, 본 연구의 결과는 미디어를 사용하는 시간이 증가할수록 사람들과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할 시간을 대체하여 타인의 정서를 이해하고 공감을 배울 기

회가 줄어들 가능성이 나타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더불어 유아의 미디어사용이 언어발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밝힌 여러 선행연구들(조운주, 2016; Zimmerman et al., 2007)의 결과를 바탕으로, 유아가 영상물에 자주 노출될 경우 시각적 자극에 몰두하는 시간이 증가하여 언어발달이 저해되며, 손상된 언어기술로 인해 긍정적인 또래관계를 맺기 어려움을 예측해볼 수 있다. 이는 언어능력을 통해 사회성을 발달시키며 또래 간 상호작용에 적절한 행동양식을 습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Hebert-Myers, Guttentag, Swank, Smith, & Landry, 2006). 또한 유아의 언어발달이 미진할 경우 자기조절의 강화를 방해하여(Jensen et al., 1997) 사회적 상호작용 시 친사회적 행동 정도가 감소하게 되고(김서희, 황성운, 2017), 이는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유하는 공감 수준의 감소와 관련성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미디어사용에 관한 부모의 중재 중 유아의 미디어사용 환경을 조성하는 간접중재 수준이 높을수록 유아의 인지적 공감 정도가 높아진다. 이는 유아의 미디어사용에 있어 부모가 사용시간을 제한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미디어의 주제를 정하는 등 전반적인 미디어 사용 규칙을 정하는 부모의 중재행동이 유아의 인지적 공감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의미한다. 특히, 본 연구결과에서 부모의 간접중재와 미디어사용시간과의 부적인 관계가 나타난 것으로 보아 유아의 미디어사용시간을 적정 수준으로 제한하고 관리하는 간접중재가 유아의 공감 발달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부모의 간접중재는 유아의 과도한 미디어사용을 막아주

는 보호역할을 함으로써, 유아의 인지적 공감 능력이 적절히 발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으로 보인다. 부모가 간접중재의 행동을 보이는 선행요인 중 하나가 미디어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나타난 점(Nathanson, 2001; Shin & Huh, 2011)을 고려해보았을 때, 유아의 미디어사용 자체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부모는 유아가 영상물을 통해 배울 수 있기를 기대하기 보다는, 사람들과의 교류로부터 사회성을 배울 수 있다고 느껴 사회적 상호작용을 더 격려할 가능성도 유추해볼 수 있다. 미디어의 위험성을 걱정하는 부모들은 자유놀이나 창의적 활동을 격려하고 자녀의 미디어사용시간을 의도적으로 제한한다는 보고(Ito et al., 2010)는 이러한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결과이다. 한편, 부모의 간접중재가 유아의 정서적 공감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적 공감에 영향을 미치는 미디어사용시간의 영향력이 간접중재의 영향력보다 월등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이 연구에서는 부모의 미디어중재 두 유형 중 간접중재에서만 유의한 영향력이 나타났는데, 이는 유아기의 발달적 특성으로 설명할 수 있다. 유아의 경우 자율성의 필요를 덜 느끼고, 부모의 규칙을 절대적으로 느끼기 때문에 부모의 감독을 쉽게 수용하는 편이라는 결과(Nathanson, 2001)를 참고했을 때, 직접중재보다 간접중재에서만 유의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부모가 자녀의 자기조절력이 낮다고 인식할수록 간접 중재 정도가 높아진 결과(Lee, 2013)를 참고했을 때, 유아일 경우 스스로 미디어사용시간을 조절하고 적절한 영상물의 주제를 선별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으므로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간접중재의 영향력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반면, 미디어 내용에 관해 설명하고 평가하는 등의 언어적 개입이 있는 직접중재의 경우 유아의 정서적 공감과 인지적 공감에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다. 이 결과는 친사회적인 주제의 TV 프로그램을 시청할 때 부모의 직접중재가 있을 경우 영유아의 공감 수준이 더 높아졌다는 연구결과(Rasmussen et al., 2016)와는 다소 상이한 결과를 제시한다. 이러한 차이는 선행연구가 교육적인 영상물을 시청하는 상황에서의 부모의 직접중재로 한정하여 직접중재와 공감 발달 간의 관계를 살펴본 반면, 본 연구에서는 모든 주제를 포괄하는 미디어사용에 있어서의 직접중재로 초점을 맞추고 있는 데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일상생활에서 유아는 교육용 영상물뿐만 아니라 오락용 영상물도 많이 접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주제의 영상물을 볼 때 발생하는 부모의 직접중재가 유아의 공감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살펴보게 되었다. 또한 간접중재가 자녀의 미디어사용시간 감소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과 달리 직접중재의 효과는 다양한 미디어 시청 상황에서 장기간 누적됐을 경우 아동 발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고려해보았을 때(Padilla-Walker, Coyne, & Collier, 2016), 유아기 때 부모의 직접중재 효과가 누적되어 아동기에 가서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더불어 부모의 직접중재가 있다하더라도, 이러한 직접중재는 자녀와 같이 책을 읽거나 장난감 놀이를 하는 상호작용을 할 때보다 어머니의 의사소통 수준이 감소하게 되고, 자녀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지기 때문에(Nathanson & Rasmussen, 2011), 자녀의 공감 발달에 미치는 간접적 효과의 크기가 더 작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유아의 공감능력과 관련이 있는 변인으로서 유아의 미디어사용시간과 부모의 미디어중재를 살펴보고 위와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으나 몇 가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에서는 유아의 미디어사용시간에 초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유아의 미디어사용에 있어 영상물의 내용과 주제, 활용 유형 등을 다각적으로 살펴본다면 유아의 미디어사용이 공감을 포함한 사회정서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풍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이 연구에서는 부모의 미디어중재 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부모 보고의 질문지를 사용했다. 질문지 응답을 통해 부모의 미디어중재 자료를 수집하는 경우, 이는 가정에서 부모가 유아와 함께 영상을 시청하며 실제로 행하는 직접중재와는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미디어사용에 관한 부모-자녀 상호작용을 직접 관찰하여 직접중재에 대한 응답을 얻을 수 있다면 부모의 미디어중재에 대해 더 많은 함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미디어사용의 시간과 내용 등을 관리하는 중재행동인 간접중재와 유아의 미디어사용시간 변수 간의 개념적 중복성이 존재한다는 한계가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이 점을 보완하여 두 변수를 독립적으로 살펴보기나 조절변수로써의 영향이 나타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다

음과 같은 의의를 지닌다. 첫째, 유아의 공감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유아가 영상이야기를 직접 시청하면서 영상이야기 속 주인공의 감정에 대한 공감을 측정하였다. 영상이야기를 사용할 경우 유아의 정서적 반응을 보다 쉽게 불러일으키고, 생태학적 타당성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공감의 단서를 다양하게 포함시키고 유아의 실생활에 적합하게 구성된 영상이야기로 유아의 공감을 측정하였다는 방법론적 의의가 있다. 둘째, 유아의 미디어사용이 증가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규정이나 지침이 없는 현 시점에서 장시간의 미디어사용이 유아의 공감 발달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밝혔다. 그동안 아동의 미디어사용과 인지발달 간 관계에 주로 관심을 가졌지만 사회정서 측면 또한 아동의 발달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다양한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이 시작되는 유아기 때 미디어를 과도하게 사용하는 것에 경각심을 가져야한다. 이 연구는 추후 유아의 미디어 노출 정도에 따라 미디어에 과몰입될 경향성을 보이고, 그에 따른 정서행동문제의 증상이 야기될 수 있다는 연구들(Divan, Kheifets, Obel, & Olsen, 2010; Zimmerman & Christakis, 2007)의 기초자료가 되어줄 뿐 아니라, 관련 연구가 확장되도록 하는데 기반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유아의 공감능력이 적절히 발달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모의 미디어중재 유형 또한 밝혔다. 유아기는 미디어사용에 관한 판단력과 자제력이 부족한 시기이므로 가정에서 자녀의 미디어사용에 대한 부모의 지도가 중요하며, 유아의 미디어사용 환경을 적극적으로 관리·감독하는 부모의 간접중재가 유아의 공감 발달에

있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미디어사용 환경 조성과 관련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구현영, 김은정 (2015). 부모의 매체 사용과 교육 요구 및 자녀 지도가 아동의 매체 사용에 미치는 영향. *Child Health Nursing Research*, 21(2), 183-193.
- 구희정 (2013). 유아의 탄력성 및 기질이 인터넷 게임 과몰입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한국 영유아보육학*, 83, 201-220.
- 권기남 (2017). 유아의 정서적·인지적 공감 및 또래 유능성이 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38(1), 217-231.
- 김서희, 황성온 (2017). 유아의 스마트미디어 몰입경향성과 친사회적 행동의 관계에서 자기 조절력의 매개 효과.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55(1), 1-12.
- 김수정, 정익중 (2016). 컴퓨터, 전자게임, 스마트폰 사용이 유아의 우울·불안과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아동과 권리*, 20(2), 157-176.
- 김종민, 문정주, 권미량 (2014). 유아기 스마트 기기 중독성에 대한 탐색적 연구. *생태유아교육연구*, 13(1), 199-219.
- 도남희, 김정숙, 하민경 (2013). 영유아의 생활 시간조사(연구보고, 2013-10). 서울: 유아정책연구소.
- 박소영, 문혁준 (2015). 유아의 스마트미디어 사용자군에 따른 사용실태 및 과다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연구. *인간발달연구*, 22(3), 25-45.
- 백혜원, 신윤미, 신경민 (2014). 초등학생들의 스마트폰 과다사용에 따른 정서 및 행동의 문제. *신경정신의학*, 53(5), 320-326.
- 성지현, 변혜원, 남지해 (2015). 유아의 스마트 기기 이용과 발달 수준 및 공감 능력과의 관계 탐색. *유아교육연구*, 35(2), 369-394.
- 송승희, 장경은 (2015). 유아의 정서적 공감능력, 어머니의 공감능력 및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 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36(3), 59-75.
- 이경숙, 정석진, 박진아, 전연진 (2014). 0-3세 영유아 영상매체 시청 및 부모의 영유아 자녀 영상매체 시청 지도 행동 실태 조사. *유아교육연구*, 34(2), 301-321.
- 이상미, 한세영 (2011). 사회적 단서와 정서의 종류에 따른 유아의 정서인식과 감정이입. *인간발달연구*, 18(2), 187-210.
- 이유진 (2016). 만 3~5세 유아의 인터넷 게임 중독 경향성 요인에 대한 어머니의 양육 태도와 유아의 자기조절력의 상대적 영향력. *미래유아교육학회지*, 23(1), 101-125.
- 이정림, 도남희, 오유정 (2013). 영유아의 미디어 매체 노출실태 및 보호대책(연구보고 2013-15). 서울: 유아정책연구소.
- 장미선, 문혁준 (2004). 유아의 공감에 관련된 변인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2(9), 53-66.
- 조안나, 고영자 (2013). 가정 내 전자미디어 사용실태 및 어머니의 미디어 중재 유형이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어린이미디어연구*, 12(1), 1-24.

- 조운주 (2016). 유아의 미디어 이용이 또래상
호작용에 미치는 영향에서 언어발달의 매
개효과. *아동학회지*, 37(5), 53-64.
- 천희영 (2015). 만4세 유아의 스마트폰 이용
정도와 발달특성, 생활시간 간의 관계 및
이용 정도 예측변인.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1(6), 153-175.
- Beaver, K. M., DeLisi, M., Vaughn, M. G.,
Wright, J. P., & Boutwell, B. B. (2008).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 control and
language: Evidence of a shared etiological
pathway. *Criminology*, 46(4), 939-970.
- Bensalah, L., Caillies, S., & Anduze, M. (2016).
Links Among Cognitive empathy, theory of
mind, and affective perspective taking by
young children. *The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77(1), 17-31.
- Bickham, D. S., Hswen, Y., & Rich, M. (2015).
Media use and depression: Exposure, household
rules, and symptoms among young adolescents
in the USA. *International journal of public
health*, 60(2), 147-155.
- Buijzen, M., Rozendaal, E., Moorman, M., &
Tanis, M. (2008). Parent versus child reports
of parental advertising mediation: Exploring
the meaning of agreement. *Journal of
Broadcasting & Electronic Media*, 52(4), 509-525.
- Christakis, D. A. (2009). The effects of infant
media usage: What do we know and what
should we learn?. *Acta Paediatrica*, 98(1),
8-16.
- Christakis, D. A., Zimmerman, F. J., DiGiuseppe,
D. L., & McCarty, C. A. (2004). Early
television exposure and subsequent attentional
problems in children. *Pediatrics*, 113(4), 708-
713.
- Clark, L. S. (2011). Parental mediation theory for
the digital age. *Communication Theory*, 21(4),
323-343.
- Cohen, J. (2001). Defining identification: A
theoretical look at the identification of
audiences with media characters. *Mass
Communication & Society*, 4(3), 245-264.
- Collier, K. M., Coyne, S. M., Rasmussen, E. E.,
Hawkins, A. J., Padilla-Walker, L. M.,
Erickson, S. E., & Memmott-Elison, M. K.
(2016). Does parental mediation of media
influence child outcomes? A meta-analysis on
media time, aggression, substance use, and
sexual behavior. *Development Psychology*, 52(5),
798-812.
- Connors-Burrow, N. A., McKelvey, L. M., &
Fussell, J. J. (2011). Social outcomes
associated with media viewing habits of
low-income preschool children. *Early Education
and Development*, 22(2), 256-273.
- Crick, N. R. (1996). The role of overt aggression,
relational aggression, and prosocial behavior
in the prediction of children's future social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7(5), 2317-
2327.
- Dadds, M. R., Hunter, K., Hawes, D. J., Frost,
A. D., Vassallo, S., Bunn, P., Merz, S., &
Masry, Y. E. (2008). A measure of cognitive
and affective empathy in children using parent
ratings. *Child Psychiatry & Human Development*,

- 392), 111-122.
- De Wied, M., Van Boxtel, A., Matthys, W., & Meeus, W. (2012). Verbal, facial and autonomic responses to empathy-eliciting film clips by disruptive male adolescents with high versus low callous-unemotional trait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40(2), 211-223.
- Divan, H. A., Kheifets, L., Obel, C., & Olsen, J. (2010). Cell phone use and behavioural problems in young children. *Journal of Epidemiology & Community Health*, 64(6), 524-529.
- Eisenberg, N. (2000). Emotion, regulation, and moral development.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1(1), 665-697.
- Eisenberg, N., & Miller, P. A. (1987). The relation of empathy to prosocial and related behaviors. *Psychological Bulletin*, 101(1), 91-119.
- Eisenberg, N., Spinrad, T. L., & Morris, A. (2014). Empathy-related responding in children. In M. Killen & J. G. Smetana (Eds.), *Handbook of moral development: Vol. 2. Research* (2nd ed., pp. 184-207). NY: Psychology Press.
- Fikkers, K. M., Piotrowski, J. T., & Valkenburg, P. M. (2017). A matter of style? Exploring the effects of parental mediation styles on early adolescents' media violence exposure and aggression. *Computers in Human Behavior*, 70, 407-415.
- Gallagher, T. M. (1999). Interrelationships among children's language, behavior, and emotional problems. *Topics in Language Disorders*, 19(2), 1-15.
- Goodrich, S. A., Pempek, T. A., & Calvert, S. L. (2009). Formal production features of infant and toddler DVDs. *Archives of Pediatrics & Adolescent Medicine*, 163(12), 1151-1156.
- Hebert-Myers, H., Guttentag, C. L., Swank, P. R., Smith, K. E., & Landry, S. H. (2006). The importance of language, social, and behavioral skills across early and later childhood as predictors of social competence with peers. *Applied Developmental Science*, 19(4), 174-187.
- Howe, A., Pit-ten Cate, I. M., Brown, A., & Hadwin, J. A. (2008). Empathy in preschool children: The development of the Southampton Test of Empathy for Preschoolers (STEP). *Psychological Assessment*, 20(3), 305-309.
- Ito, M., Baumer, S., Bittanti, M., Boyd, D., Cody, R., Stephenson, B. H., Horst, H. A., Lange, P. G., Mahendran, D., Martinez, K. Z., Pascoe, C. J., Perkel, D., Robinson, L., Sims, C., & Tripp, L. (2009). *Hanging out, messing around, and geeking out: Kids living and learning with new media*. Cambridge, Mass: MIT press.
- Jensen, P. S., Mrazek, D., Knapp, P. K., Steinberg, L., Pfeffer, C., Schowalter, J., & Shapiro, T. (1997). Evolution and revolution in child psychiatry: ADHD as a disorder of adaptation.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36(12), 1672-1681.
- Krcmar, M., Grela, B., & Lin, K. (2007). Can toddlers learn vocabulary from television? An experimental approach. *Media Psychology*, 10(1),

- 41-63.
- Lauricella, A. R., Wartella, E., & Rideout, V. J. (2015). Young children's screen time: The complex role of parent and child factors.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36*, 11-17.
- Lee, S. J. (2013). Parental restrictive mediation of children's internet use: Effective for what and for whom?. *New Media & Society, 15*(4), 466-481.
- Miller, P. A., & Eisenberg, N. (1988). The relation of empathy to aggressive and externalizing/antisocial behavior. *Psychological Bulletin, 103*(3), 324-344.
- Nathanson, A. I. (1999). Identifying and explai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mediation and children's aggression. *Communication Research, 26*(2), 124-143.
- Nathanson, A. I. (2001). Parents versus peers: Exploring the significance of peer mediation of antisocial television. *Communication Research, 28*(3), 251-274.
- Nathanson, A. I., & Rasmussen, E. E. (2011). TV viewing compared to book reading and toy playing reduces responsive maternal communication with toddlers and preschoolers. *Human Communication Research, 37*(4), 465-487.
- Neuman, S. B. (1995). *Literacy in the television age*. Norwood, NJ: Ablex.
- Nigg, J. T. (2006). *What causes ADHD?: Understanding what goes wrong and why*. New York: Guilford Press.
- Nikken, P., & Jansz, J. (2014). Developing scales to measure parental mediation of young children's internet use. *Learning, Media and Technology, 39*(2), 250-266.
- Ostrov, J. M., Gentile, D. A., & Crick, N. R. (2006). Media exposure, aggression and prosocial behavior during early childhood: A longitudinal study. *Social Development, 15*(4), 612-627.
- Padilla-Walker, L. M., Coyne, S. M., & Collier, K. M. (2016). Longitudinal relations between parental media monitoring and adolescent aggression, prosocial behavior, and externalizing problems. *Journal of Adolescence, 46*, 86-97.
- Pons, F., Harris, P. L., & de Rosnay, M. (2004). Emotion comprehension between 3 and 11 years: Developmental periods and hierarchical organization. *Europ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1*(2), 127-152.
- Prot, S., Gentile, D. A., Anderson, C. A., Suzuki, K., Swing, E., Lim, K. M., Horiuchi, Y., Jelic, M., Krahe, B., Liuqing, W., Liao, A. K., Khoo, A., Petrescu P. D., Sakamoto, A., Tajima, S., Toma, R. A., Warburton, W., Zhang, X., & Lam, B. C. (2014). Long-term relations among prosocial-media use, empathy, and prosocial behavior. *Psychological Science, 25*(2), 358-368.
- Rasmussen, E. E., Shafer, A., Colwell, M. J., White, S., Punyanunt-Carter, N., Densley, R. L., & Wright, H. (2016). Relation between active mediation, exposure to Daniel Tiger's Neighborhood, and US preschoolers' social and

- emotional development. *Journal of Children and Media*, 10(4), 443-461.
- Shin, W., & Huh, J. (2011). Parental mediation of teenagers' video game playing: Antecedents and consequences. *New Media & Society*, 13(6), 945-962.
- Strayer, J., & Roberts, W. (2004). Empathy and observed anger and aggression in five year olds. *Social Development*, 13(1), 1-13.
- Strouse, G. A., O'Doherty, K., & Troseth, G. L. (2013). Effective coviewing: Preschoolers' learning from video after a dialogic questioning interven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49(12), 2368-2382.
- Tanimura, M., Okuma, K., & Kyoshima, K. (2007). Television viewing, reduced parental utterance, and delayed speech development in infants and young children. *Archives of Pediatrics & Adolescent Medicine*, 161(6), 618-619.
- Vaish, A., Carpenter, M., & Tomasello, M. (2009). Sympathy through affective perspective taking and its relation to prosocial behavior in toddlers. *Developmental Psychology*, 45(2), 534-543.
- Valkenburg, P. M., Krcmar, M., Peeters, A. L., & Marseille, N. M. (1999). Developing a scale to assess three styles of television mediation: "Instructive mediation," "restrictive mediation," and "social coviewing". *Journal of Broadcasting & Electronic Media*, 43(1), 52-66.
- Valkenburg, P. M., Piotrowski, J. T., Hermanns, J., & de Leeuw, R. (2013). Developing and validating the perceived parental media mediation scale: A self determination perspective. *Human Communication Research*, 39(4), 445-469.
- Vandewater, E. A., Bickham, D. S., & Lee, J. H. (2006). Time well spent? Relating television use to children's free-time activities. *Pediatrics*, 117(2), e181-e191.
- Warren, R. (2003). Parental mediation of preschool children's television viewing. *Journal of Broadcasting & Electronic Media*, 47(3), 394-417.
- Wechsler, D. (2016). (K-WPPSI-IV) 한국 웨슬러 유아지능검사 실시지침서. 박혜원, 이경옥, 안동현(역). 서울: 학지사 심리검사연구소. (원본 발간일, 2012)
- Williams, A., O'Driscoll, K., & Moore, C. (2014). The influence of empathic concern on prosocial behavior in children. *Frontiers in Psychology*, 5(425).
- Zimmerman, F. J., & Christakis, D. A. (2007). Associations between content types of early media exposure and subsequent attentional problems. *Pediatrics*, 120(5), 986-992.
- Zimmerman, F. J., Christakis, D. A., & Meltzoff, A. N. (2007). Associations between media viewing and language development in children under age 2 years. *The Journal of Pediatrics*, 151(4), 364-368.
- 1 차원고접수 : 2018. 01. 06.
수정원고접수 : 2018. 02. 15.
최종게재결정 : 2018. 02. 22.

The Effects of Duration of Media Use and Parental Media Mediation on Preschoolers' Empathy Ability

Kang, Boram

Lee, Kangyi

Dept. of Child Development and Family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s of preschoolers' duration of media use and parental media mediation on preschoolers' empathy ability. The participants were 123 preschoolers (52 3-year-old children, 71 5-year-old children) and their parents residing in Seoul, South Korea. Each child was presented with four video vignettes of children in emotional scenarios. The children were asked about the protagonists' emotions while watching the video vignettes. The parents were asked to complete questionnaires to investigate children's duration of media use and the parents' degree of media mediation. The data analysis methods included descriptive statistics, two-way analysis of variance(ANOVA), Pearson's correlations and multiple linear regression. The findings are as follows. Children's duration of media use had a negative effect on their affective empathy ability and cognitive empathy ability. Parental indirect mediation had a positive effect on children's cognitive empathy ability. The findings suggest that children's duration of media use should be restricted to improve children's empathy ability. Furthermore, the findings are discussed in light of young children's needs for parental mediation as a setting in a media use environment.

Keywords: affective empathy, cognitive empathy, empathy-inducing video clip, duration of media use, media mediation